

전남교육청,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한다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 자각·주체적 민주시민 양성

참여·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추진 전략

올 한 해 전남 도내 각급 학교 현장에서 존중과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확산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과 절차를

이해하여 이를 자신, 가정, 학교, 사회에 적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존중,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 참여, 비판적 성찰 역량을 길러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민주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로는 △ 민주시

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학생자치 활성화 △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과제가 학교에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성을 반영한 교실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도내 전체 학

교가 참여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과 '학교자치기구(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 자문관과 함께 2020년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원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민주시민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과 함께 전국 단위 학생주도성 온라인 포럼 운영, 학교자치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다. 특히, 도내 19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를 진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 학교자치 조례 제정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서도 전남의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주체적

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에 따른 시군 교육지원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담양외국어체험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우)은 '2020학년도 담양외국어체험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담양 관내 초등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담양외국어체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담양군의 적극적인 지

원을 바탕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10일간 집중 실시하며, 초등학교 3-4학년들을 두 기수로 나누어 기수별 5일간 총 40시간씩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문화 이해 함양을 위해 운영된다.

담양외국어체험센터는 레스토랑, 에어플레이 등 다양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센터 운영 강사들의 지속적인 영어 교육 연구 및 타 지역 외국어체험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영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본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영어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게임을 주제로 한 수업(가면 만들기, 우주선에서 미션 수행하기 게임 등)을 비롯하여 쇼핑 놀이기, 고 피쉬 게임 하기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공공도서관, 비대면 시대 '스마트도서관 큰 호응'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전만석)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이 월 평균 400여권의 도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나주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서관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금전농협 하나로마트 빛가람점에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도서 대출·반납 장비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책을 무인으로 대출/반납할 수 있는 기기다.

아울러 나주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큰 호응에 따라 스마트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를 최대 2권에서 3권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신간 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 1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도서로 교체할 예정이다.

기동휘재본부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발표

'노동인권교육 경험'·'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및 '부당대우와 인권침해 경험' 증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중·고등학교 연례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12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높은 편이지만 지난 2014년(88.6%), 2017년(74.5%)에 비해 대폭 개선되고 있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3%로 2017년(52.1%)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연례대 청소년에게서 교

육 경험이 17.3%에서 4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진행 주체는 교사와 외부강사 등이 있는데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 비중(45.3%)보다 높았다. 2020년에는 외부강사 비중(53.8%)이 교사 비중(44.9%)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의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력·유경력 청소년 모두 임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3.2%에서 2020년 30.7%로, 유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47.6%에서 2020년 42.2%로 임금 고려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7.5%에서 2020년 39.1%로, 유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2.1%에서 2020년 36.5%로 증가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지만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연례대 청소년에게서 교

육 경험이 17.3%에서 4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진행 주체는 교사와 외부강사 등이 있는데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 비중(45.3%)보다 높았다. 2020년에는 외부강사 비중(53.8%)이 교사 비중(44.9%)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의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력·유경력 청소년 모두 임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3.2%에서 2020년 30.7%로, 유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47.6%에서 2020년 42.2%로 임금 고려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7.5%에서 2020년 39.1%로, 유경력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2.1%에서 2020년 36.5%로 증가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지만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연례대 청소년에게서 교

조인호기자

